

2025학년도 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마음이 전달되는 말하기의 중요성]

이름	김성수
전공	기계공학부
학번	20231072
참여 프로그램	☐ 1-on-1코칭 (담당교수) ☒ 글말특강 (9회차)

‘마음이 전달되는 말하기의 중요성과 다양한 말하기 상황에서의 효과적 소통기법’을 중심으로 진행된 글말 교실 강좌는 단순히 말하는 기술을 넘어서, 말이 마음을 담을 때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평소 ‘말하기’라고 하면 발표나 면접처럼 형식적인 상황을 떠올렸던 나는, 이 강좌를 들으며 일상 속 대화, 특히 가족 간의 말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속에서 얼마나 자주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 보게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 중 하나는 말에는 반드시 ‘의도’와 ‘관계’가 함께 따라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닿는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얼마 전 어머니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며칠 전, 어머니께서 새로 시작한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내 의견을 물으셨던 일이 있었다. 나는 피곤한 상태였고, 별 생각 없이 “그 나이에 무슨 그걸 해?”라고 말하고 말았다. 평소 어머니와 편하게 대화하는 사이라 큰 의미 없이 던진 말이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던 것이 떠올랐다. 그 당시에는 ‘뭐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나’ 하고 넘겼지만, 이번 강의를 듣고 나니 내 말 속에 담긴 무심함과 배려 없는 표현이 얼마나 큰 벽을 만들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강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감적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듣는 사람의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왜 그걸 해?”가 아니라, “그 활동이 엄마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 요즘은 어때?”라고 물었더라면 어머니는 훨씬 따뜻함을 느끼셨을 것이다. 마음을 이해받는 느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말하기 상황에 따라 소통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친구와의 말하기, 직장에서의 말하기, 낯선 사람과의 말하기 등 각각의 관계 속에서 말의 목적과 방식은 달라진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진심’이라는 점은 공통되었다. 형식적인 표현을 넘어서, 진심이 담긴 말은 관계를 바꾸고,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의를 마치고 나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때 엄마 기분 상하셨을 것 같아. 미안해. 엄마가 하고 싶은 걸 응원해주지 못한 내가 부끄럽네.” 어머니는 웃으며 “괜찮아, 나도 네 마음 이해했어”라고 하셨지만, 나는 그 순간 진심이 담긴 말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지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말하기를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가는 매개체로 바라보게 되었다. ‘말은 마음의 얼굴이다’라는 말처럼, 어떻게 말하느냐가 곧 내 마음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다. 글말 교실을 통해 배운 이 따뜻한 통찰은 앞으로 내 삶 속 모든 말하기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라도 더 따뜻하게, 더 진심을 담아 말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그렇게 실천해볼 것이다.